

보건소서 친구들과 출판 벌인 보건소장

폭언·갑질 의혹도

광주 한 보건소장이 공공기관 보건소 내에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출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도 제기돼 보건소 공무를 총괄하는 간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사를 했다는 지적이다.

1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한 자치구 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최근 A 보건소장의 전횡과 관련한 제보를 받았다.

노조는 제보 내용을 토대로 지난 5일부터 일주일 동안 보건소 조합원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벌였다.

설문에서는 'A 소장이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보건소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친구들과 술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사 결과 A 소장은 수개월간 보건소 교육장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출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매주 목요일 오후 8시부터 1시간 가량 친구 사이인 의대 동기 5명과 일명 '리인댄스'를 했다. 술을 준 뒤에는 청소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소장은 올초 전남 보건소장에게 교육장 이용을 문의한 뒤 건네받은 보안열쇠로 교육장을 드나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공 업무·용도로 사용되는 보건소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하직원인 보건소장이 공무를 총괄하는 보건소장의 지위를 의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A 소장은 "친구들이 모두 지역주민인 만큼 공공시설인 보건소를 주민에 개방하고 공유하는 차원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절차를 거쳐 공간을 대여하려 했고, 주민 여가프로그램으로 구성할 계획이 있었다"면서 "전남 보건소장이 공간 사용을 흔쾌히 허락하면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프로그램 구성도 무산됐다"고 밝혔다.

A 소장은 또 "지위를 남용해 시설을 이용한 것은 아니며, 지소장의 호의로만 생각했다"면서 "공공시설을 사적으로 이용한 점에서 부적절했다"고 시인했다.

서은홍 기자

전남 원전 특별회계, 꽃강 조성 등 '엉뚱한 곳 사용'

재난 대비보다 선심성·숙원사업에 사용

전남도와 일선 군이 원전 안전대책에 사용해야 할 원전특별회계 지역개발 지원금 일부를 엉뚱하게 선심성, 숙원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원전특별회계 주변지역과 인접지역의 방재대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원전개발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원전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영광군과 인접 장성·함평·무안·신안군, 도에 배정하고 있다.

올해 특별회계 세입액 규모는 1kwh당 1원 기준으로 환산해 406억원으로 영광군에 263억원(65%), 전남도에 143억원(35%)을 배분했으며, 전남도 수입 143억원 중 90억원(65%) 정도를 인접 4개 군에 지원했다.

내년 원전특별회계 세입액 규모

도 400억원 정도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와 일선 군은 원전 안전 대책 등에 사용해야 할 지원금 일부를 매년 엉뚱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정책 개발 수요에 충족하거나 단기 일회성 사업에 투자하는가 하면 일선 군 역시 재난방재보다는 선심성, 숙원사업 위주로 소규모 분산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지난해 원전개발 지원금 중 10억원에 이어 올해 8억원을 꽃강조성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때 원전개발 지원금 수역원이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도 원전 인접 4개군 소하천 정비사업(2억5000만원)과 소교량 정비사업(3억원), 범죄예방 CCTV설치

(15억원) 등 선심성 의혹이 있거나 숙원사업에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도 위험교량 정비사업(6500만원), 선착장 보수공사(7600만원), 침수정비사업(8억5000만원), 하천 재해예방사업(13억원) 등에 사용했다.

원전특별회계가 세입의 특성상 관련법과 조례에 규정해 집행돼야 하지만 일부가 제멋대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원전특별회계로 마련된 지원금이 재난방재보다는 선심성, 숙원사업에 소규모로 분산투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조례에 따라 목적에 맞는 지역균형개발 사업은 가능한 만큼 에너지신산업이나 인구정책분야 등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꽃무릇과 함께 13일 경남 함양군 함양읍 천년의 숲 상림공원에 꽃무릇이 꽃망울을 터트려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다. 꽃무릇은 '석산(石蒜)'으로도 불리며 꽃말은 '이룰 수 없는 사랑'이다.

성비위 기간제교사 성적조작 시인

성 비위 사건과 함께 불거졌던 광주 모 여고 성적조작이 사실로 드러나 해당 학교가 성적을 재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모 여고 전 기간제교사 A(36)씨가 성 비위 대상으로 삼은 1학년 여학생의 1학기 기말고사 한 과목의 성적을 조작했다고 일부 시인했다.

학생도 기말고사를 치른 후 A씨가 자신의 처량으로 불려 특정 과목의 서술형·객관식 문제 오답을 수정하게 해줬다고 진술했다.

학생은 성적을 조작한 과목만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다.

경찰은 성적을 조작한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조인호 기자

캘리포니아서 총기난사...용의자 등 6명 사망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모두 6명이 숨졌다. 12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당국은 이날 캘리포니아주(州) 베이커즈필드시(市)에서 오후 5시20분께 발생한 일련의 총격으로 용의자를 포함해 모두 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컨 카운티 경찰 도니 영블러드는 기자회견에서 "용의자는 베이커즈필드에 위치한 한 트럭 회사에서 자신의 아내와 한 남성을 총으로 쏘 살해했다"고 밝혔다.

영블러드에 따르면 용의자는 이어 트럭 회사에서 도망간 다른 피해자를 쫓아 달려 나가 인근 스포츠 용품 상점 앞에서 총격을 가했다.

이후 브레이크리지 길의 주택가에서 두 명의 남성을 더 살해한 용의자는 한 여성과 아이가 타고 있는 차량을 탈취해 도주를 시도하다 경찰과 맞닥뜨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공격에 사용된 총기를 발견했다. 차량을 빼앗긴 여성과 아이는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블러드는 "이 모든 게 10~15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며 "이같은 총기난사는 미국 전역의 '뉴 노멀(New normal)'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국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고 보고 사건의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며 "30여명의 목격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서 차량 돌진·홍기난동 사건...11명 사망

중국 후난(湖南) 성에서 12일 저녁 차량 돌진 및 홍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11명이 숨지고 44명이 다쳤다.

13일 후난성 현지 매체 홍왕은 용의자인 양(54)씨가 전날 오후 7시 35분께 형양(衡陽)시 형동현 미장광장으로 자신의 SUV를 몰고 들어가 홍기 난동을 부렸고, 이번 사고로 13일 오전 10시 기준 위와 같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현지 경찰은 또 용의자가 집이식산 칼 등을 휘두르면서 무차별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사망자수는 9명, 부상자수는 46명으로 알려졌다. 현재 44명의 부상자는 현지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광장무를 추거나 산책하러 나온 사람들로 붐비는 광장에서 발생해 인명피해가 특히 심각했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용의자가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품고 방황을 벌인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무직인 용의자는 마약판매, 방화, 상해, 절도 등 전과 8범이며, 저분화선임과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짐바브웨, 콜레라 발생으로 21명 사망

콜레라 발생으로 21명이 사망함에 따라 짐바브웨 경찰이 12일(현지시간) 수도 하라레에서 공공집회(public gatherings)를 금지시켰다.

제러미 차바바 경찰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공공집회 금지 명령은 콜레라가 계속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짐바브웨 정부는 콜레라 창궐에 따라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짐바브웨 법률은 공청회(public meeting)와 공공시위(public demonstration)에 한해 공공집회를 허용하고 있다.

오마비야 모요 보건장관은 11일 2000명을 조금 넘었던 콜레라 환자 수가 하루만에 3067명으로 약 1000명이나 급격히 늘었다고 밝혔다.

최근 사망자 중에는 콜레라 발생의 진원지 중 하나로 알려진 하라레 외곽 빈민가 글렌 뷰의 한 학교 교장과 학생 2명이 포함돼 있다. 모요 장관은 학교 한 곳이 폐쇄됐다고 말했다.

짐바브웨에서는 지난 2008년 콜레라 창궐로 4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후 위생시설들이 계속 무너져 왔다.

모요 장관은 그러나 "정부가 적절한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8년과 같은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약속한다"고 말했다.

하라레 일부 외곽 지역에는 몇달 전부터 수도물이 나오지 않아 주민들이 우물물 또는 지하수를 마시고 있는데 상당수가 오염된 것으로 우려된다.

모요 장관은 많은 노점상들이 불결한 하수구 근처에서 고기 등 음식물을 팔고 있는데 이러한 노점 판매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콜레라는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먹었을 때 발병하며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몇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집회 금지령은 지난 7월 대신에서 승리를 도둑맞았다고 주장하는 벨스 차미사 야당 지도자가 계획한 대중 집회를 앞두고 이뤄져 논란을 부르고 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폐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 h-well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 [고객센터 1577-1000]